

1. <가>의 실험은 이익과 손해라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준다. 먼저,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낮은 확률의 큰 이익보다 확실한 적은 이익을 선택했다. 반면에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적은 손해보다 낮은 확률의 큰 손해를 선호했다. 이는 각 상황에서의 기대이익, 기대손실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이었다. 즉, 합리성과 유리된 실험결과인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일본의 결정에 이 실험결과가 나타난다. 일본은 당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연합국에 항복할 시에 요구받는 조건들은 일본이 수용하기 힘들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 또한 매우 희박했다. 게다가 전쟁을 일으킨 뒤, 패배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희생 또한 만만치 않았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일본은 선제공격 시에 승리할 확률을 70~80퍼센트 정도로 예상했고, 이후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낮은 확률로 선제공격에서 패했을 때에 입는 극심한 손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은 항복 이후 무기력하게 손해를 입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제공격을 선택한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이익에 대한 갑과 을의 선택이 나온다. 갑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하지만, 값비싼 약초를 캐는 일을 한다. 그에 비해, 을은 안전한 낮은 산에서 평범한 약초를 캐다. 이렇게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을은 확실한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은 불확실한 이익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을은 매일 평범하고 값싼 약초를 캐더라도 꾸준한 이익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는, 즉 위험부담이 적은 선택을 한다. 일본의 결정과 다르게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을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비록 적은 이익이라도 안정된 선택을 한 것이다.

2. <라>에서 염상진은 두 사람의 선택을 비판한다. 두 사람은 목숨에 연연하여 끝까지 의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다. 염상진은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히 배격한다. 희생을 각오하지 못해 결의에 대한 투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나약함을 혐오한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빠져 본래 의도한 바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겁하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일본과 을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을 놓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중일전쟁에 이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정한다. 미국과 유럽 열강의 압박이 이어지고, 그들의 연합이 위협으로 다가오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최대한 희생을 줄이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을 또한 자신이 이미 얻고 있는 적은 이익에 머무르려 한다. 희생을 각오하고 값비싼 약초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자는 갑의 설득에도 을은 현실에 안주한다. 오히려 갑의 위험 가득한 행동과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비판하기도 한다. 즉, 일본과 을은 희생이 두려워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희생을 각오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타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개발할 수 있었고, 나폴레옹은 희생을 각오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은 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시대를 뒤엎는 변화와 개혁은 이와 같이 희생에 맞서 싸운 결과이다. 두려움에 밀려 나아가지 못하고 눈앞의 대가만 바라보고 안주하는 삶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